

# 도의회 “공공배달앱 확대 도입을”

### 최영심 의원 주관 세미나… “가맹점이 시청 등 방문 안하고 편의성 높일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 필요”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정의당 비례)의원은 지난 2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공공 배달 앱 확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먼저 세미나를 주최한 최영심 의원은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원의 사업자와 소비자를 위한 공공 배달앱의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형욱 군산시 유통혁신계장의 발제와 함께 고선영 전북청년경제인연합회 지문위원, 김대성(썬)지니소프트 이사, 이준 아람솔루션 대표, 변철섭 필립경영기술연구원장,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신원식 도 일자리경제정책관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고 최영심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세미나에서 ‘군산 배달의 명수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김형욱 군산시 계장은 “배달의 명수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함께 소비자와 가맹점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군산 공공 배달앱의 개발과 운영을 맡은 이준 아람솔루션 대표는 “공공 배달앱은 행정기관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맹점의 신뢰성, 마케팅의 신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은 지난 28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공공 배달 앱 확대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지역상품권과 연계를 통한 민간 앱과의 차별화 전략을 강조했다.

이어 전북연구원의 이지훈 박사는 “공공 배달앱은 국무조정실의 규제 혁신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했는데, 앞으로 전라북도 전역으로 확대할 경우 군 지역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고선영 의원은 “가맹점이 시청 등을

방문하지 않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입절차와 공공앱과 제로페이를 연동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변철섭 원장은 “지금과 같은 공공 배달앱의 경우 WTO의 제소 가능성이 있고 음식점에만 한정했다는 문제점과 더불어 세금으로 언제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지자체 주도가 아닌 펀드 형

태의 기업 지원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신원식 정책관은 “전북도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라이더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과 운용형태를 고심하고 있다”면서 관련 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내비쳤다.

한편 최 의원은 전북도 연구용역 추진 경과에 따라 추후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도의회 행사위

### 순창소방서 개칭식 참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는 지난 29일, 도내 12번째로 문을 연 순창소방서 개칭식을 참관하고 청사 내 주요시설과 차량 및 장비 등을 점검하는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순창군은 강전산, 고추장마을 등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구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독립된 소방서의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순창소방서 개칭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전라북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과 각종 소방 재난업무에 완벽한 대응으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순창소방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마스크 5부제, 이달부터 폐지한다

### 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든 구매 가능

공적 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터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공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할 수 있다.

단,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

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인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또 학생의 등교 수업에 맞춰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6월 1일부터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공적 마스크를 1주일당 5개 구입할 수 있다.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본격적인 더위에 대비해 수술통(덴탈) 마스크 등의 생산량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한다.

그동안 수술통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하루 평균 49만개 생산되는 덴탈마스크의 대부분은 의

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 조정(80%→60%)을 통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일명 ‘일반인 덴탈마스크’인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을 신설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다.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장기적 코로나19 대비를 위해 6월부터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뉴시스

## “남편, 정의연서 부당이득 없어”

### 윤미향 의원, “딸 유학비, 남편 형사보상금 등으로 총당 소식지 제작, 최저금액 제시 남편 신문에 맡긴 것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비난은 중단해줬으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장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현, 의원·사진)은 지난 29일 남편의 정의연 일감 주주, 딸의 유학자금 출처 등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족들 돈으로 총당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저는 급여를 받으면 저축하는 오랜 습관이 있다. 주택 마련과 딸의 학비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꿈꾸기 위해 제 나름대로의 최소한의 생활 방편이었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정의연·정대협 활동을 통해 강연, 원고, 책 인쇄 등 특별 수입은 기부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용수 할머니와 관련해 “사실 1992년부터 30년간 같이 활동해왔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이란 세월과 달리 할머니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할머니가 (나를) 배신자라 느낄 만큼 내가 신뢰를 드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미 그건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할머니께 내 마음, 진심을 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또한 “할머니에 대한 비난은 중단해줬으면 한다”면서 “할머니들은 일본군 성매매 피해자란 아픔을 겪은 것만으로도 존중받고 보호 받아야 할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가 보수적이고 거부감적이라는 피해를 억압하고, 침묵을 강요할 때 내가 피해자였다고 목소리를 낸 것 만으로도 용감하고 용기있는 행동으로 평가 받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0일부터 시작된 21대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윤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 등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나간다고 밝히며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뉴시스

## 與 “윤미향, 직접 의혹 소명해… 檢 수사 보고 입장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윤미향 당선인(현, 의원)이 자신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것과 관련, “윤 당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윤 당선

인의 기자회견 직후 서면 논평을 내고 “오늘 윤미향 당선인은 정의연(정대협) 활동에 관한 문제, 본인 개인명의 후원금 모금, 주택 구매, 딸 유학자금 문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했다”며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IMSIL-GUN 임실군

심진강 리네상스 시대를 열어갑니다